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 도 자 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전매체> 11.11.(수) 8:00	배포	2026.11.11.(수)

담당•배포 부서	소통홍보팀	책임자	팀 장	김민철 (044-300-0720)
		담당자	주 임	김샛별 (044-300-0721)

기정원장, 스마트 영농 솔루션 전문기업 '㈜하다' 현장 간담회

- 전북TP 스마트제조혁신단·㈜하다 방문… 기업 지원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10일(화)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 스마트제조혁신단과 스마트 영농 솔루션 전문기업 '(주)하다'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특화산업육성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의 활용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북TP 스마트제조혁신단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정원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년간 대형 시제작용 SLA 3D AM, 시양산용 MJF 3D AM, 600kV엑스선 스캐너 등의 장비를 구축했다.

○ 본 사업단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특수목적용 모빌리티, 방산,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제품·부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목업) 제작, 품질검증 및 안전성 평가 등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전북 익산에 생산공장을 둔 ㈜하다는 2012년 12월 법인을 설립한 이후 밭작물 농업기계와 농업용 로봇을 연구·개발해 온 기업이다. 마늘 농작업의 파종·방제·절단·수확·건조·선별 전 공정을 기계화하는 제품군과 승용관리기·정밀 비료살포기 등 공통 농업기계를 함께 생산하며, 농업용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 ㈜하다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활용 우수기업으로, 시양산용 MJF 3D AM 장비를 활용해 마늘 파종기 부품과 전동화 양파정식기(개발품) 분배 노즐 목업을 제작했다. 그 결과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마늘)의 임대농기계 조달계약(1억 1,600만 원)을 체결하고, 특허 2건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이날 김영신 원장은 전북TP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장비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사례를 살펴본 뒤, ㈜하다의 생산시설과 제품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장비 활용 성과와 제품 개발 과정의 애로사항, 향후 사업화 계획 등을 청취했다.

□ ㈜하다 하종우 대표는 “2012년 법인 설립 이후 매출이 연평균 27.5% 성장해 지난해 62억 원을 기록했고, 임직원도 40명으로 늘었다”며, “밭작물 농업기계에서 출발해 농업용 로봇까지 제품군을 넓혀온 만큼,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이 시제품 제작과 조달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 “앞으로도 제품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스마트 영농 솔루션 분야의 핵심 제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영신 원장은 “공공 지원으로 구축한 생산장비가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를 살피고, 장비와 기술 지원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